三所에서 가을 墓祀 엄수

院北·下林·鷹巖

▶후손들이 가을 묘사 향례를 치르고 있다.

全國 2백여 祭官 參禮

鎭海화수회선 祭物로 돼지 貢獻

함안조씨 종사운영회의 가장 큰 행사인 가을 묘정(墓庭) 향례(享禮)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이틀동안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와 하림리 등 세곳의 선조 묘소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전국에서 참례한 제관은 2백여명을 헤아렸다.

첫날 21일 상오 원북리 전서공(典書公)묘역에서 이들동안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와 하림리에서 10세조 전서공선조 그리고 법수면 웅암리등 시초로 13세조 좌윤(左尹)공, 14세조 판결공, 절도공 그리고 절도공의 중손 도사공(都事)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하오에는 下林里로 옮겨 11세조 시정공(寺正公) 묘역에서 진행되었고 11세조 참지공(參知公), 13세조 진산공(珍山公), 14세조 옥봉공(玉峰公)과 우후공(虞候公), 15세조 참봉공(參奉公) 순으로 거행되었다.

22일 상오 10시 법수면 정화및 보수사업을 확정 웅암동 묘역에서 거행된 하고 3월부터 착수키로 정철공(貞節公)어계선생 제관이 2백여명이나 참 했다.

사업은 함안군 법수면 웅암동 소재 어계선조(漁溪先祖)묘역 보사인 하림재(霞林齋) 보 소나무 뿌리 제거 작업등이다.

漁溪先祖 墓域등 정화

宗事運營會 97년사업 확정

함안조씨 종사운영회는 97년도 선조 유적지와 신도비각(神道碑閣) 주변정화사업 그리고 1703년 창건되어 43년전 중건된 서산서원 부속전물 채미정(採薇亭)과 시정공(寺正公) 재선조(漁溪先祖)묘역 보사인 하림재(霞林齋) 보 강주리 웅암동소재 어계 수, 서산서원과 원북재 (院北齋) 방(房)전기 판 넣는등 교체, 하림 시정 공 묘역 안내판 수정, 부속전물 채미정(採薇亭) 보수 등 전종원의 유기적인 연결을 이룩할수 있는 역할은 한것으로 자평(自評)하고 있다.

全國서 2천여만원 답지

96년 會報협찬금 감사합니다

함안조씨 종회보(宗會報) 발행을 돕기위해 지난 한해동안 전국 일가들이 보내주신 협찬금이 2천9만원에 달해 지난 1년동안 종회보가 순조롭게 발행되었다.

종사운영회는 지난해 2월 1일자 발행한 회보 6호에 끼워 넣은 삽지 (挿紙)를 통해 종중(宗中) 적극 호응해 주셔서 합계 2천 9만원이 답지 되었다.

일가들이 전혀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뜻이 있는 분들은 1년에 1회 1천 9백 86만 2천원과 약간의 광고료등으로 네 차례의 종회보 발간에 차질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1년동안 종회보 발송대상 1만 3백여세대 가운데 1천 1백여세대의 일가들이 종회보가 발행 회수 연결을 이룩할수 있는 역할은 한것으로 자평(自評)하고 있다.

종사운영회는 4년 11월 웅암재 중건공사에 착수 하면서 발행하면서 게된 종회보가 발행 회수 연결을 이룩할수 있는 역할은 한것으로 자평(自評)하고 있다.

종사운영회는 지난해 1월 6일 사무실을 부근 넓은 곳으로 이전했다.

옮긴곳은 군북면 중암리 29-1 함안군 군의원 사무실 이전 소식을 듣고 내방한 性暉(약 80평)인데 전화와 팩시번호는 변경되지 않았다.

한편 사무실 이전 소식을 듣고 내방한 性暉 옮겨와 놓아라면서 2백만 원을, 碩濟군의회 의장 庠濟종원의 건물 3층 부의장 鉦濟종원이 각각 50만원, 그리고 양 산시 물금유 都事公 종중에서 1백만원을 전달 했다.

▲趙鏞文(陷岩公派)=30만원

▲趙鉦濟(執義公派)=30만원

▲趙庠濟(大笑軒公派)=30만원

▲趙壽濟(同知公派)=30만원

▲趙碩濟(櫚松堂公派)=30만원

▲趙願松(大笑軒公派)=30만원

宗事運營會 移轉

여러 宗員들, 집기등 기증

종사운영회는 지난 1월 6일 사무실을 부근 넓은 곳으로 이전했다.

옮긴곳은 군북면 중암리 29-1 함안군 군의원 사무실 이전 소식을 듣고 내방한 性暉 옮겨와 놓아라면서 2백만 원을, 碩濟군의회 의장 庠濟종원의 건물 3층 부의장 鉦濟종원이 각각 50만원, 그리고 양 산시 물금유 都事公 종중에서 1백만원을 전달 했다.

▲趙鏞文(陷岩公派)=30만원

▲趙鉦濟(執義公派)=30만원

▲趙庠濟(大笑軒公派)=30만원

▲趙壽濟(同知公派)=30만원

▲趙碩濟(櫚松堂公派)=30만원

▲趙願松(大笑軒公派)=30만원

鷹巖齋 헌성음금

함안군 議員의장등 宗員6명 30만원씩

함안군 군의회 趙壽濟 의장등 6명의 일가들이 각각 30만원씩 합계 1백80만원을 鷹巖齋중건공사 청산비로 사용해 달라고 종사운영회에 보내왔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구화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宗浩회장 등 90여명 회원이 寧越 漁溪碑苑 淸冷浦 莊陵을 둘러보고 이어 彰節祀를 참배후 귀로에 자규루 관풍헌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지난 11월 10일 金山화수회 東來지회(회장 錆濟)회원 40여명이 여계선조 산소에 성묘하고 웅암재 등을 견학했다. 일행은 향초대로 10만원을 鏞燮 사무국장에 전달.

宗告

▲甲辰譜 庚子譜 影印本 신청바람

宗事運營會는 지난 8호 宗告를 통해 3백33년전 족보 甲辰譜와 2백 17년전 庚子譜를 영인(影印)하여 나누어 드리고 10여 질이 남아있습니다. 소장하실 일가께서는 군북우체국 6101 47-003358-17 조용섭 사무국장앞으로 10만원을 송금하시고 함안(83-6787)-부산(463-1572)으로 연락하시면 곧 소포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鷹巖齋낙성식 비디오테이프 申請바람

1995년 12월 4일 鷹巖齋낙성식과 漁溪선조 묘사(墓享) 참면을 촬영하여 만든 비디오테이프가 몇권 남아 있습니다. 대금 1만 5천원

▲선조의 얼 비디오테이프 申請발음

함안조씨 부산청년회가 제작하여 일가님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선조의 얼 비디오(2권)」 필요하신 일가들은 부산(463-1572)로 연락하신시요. 대금 4만원

宗會報 發刊 찬조금

97年度의 宗會報 宗員님의 적극 協贊 바랍니다

宗事中 行事 案內

▲四月十四日 上午 十一時 서산서원에서 종사운영회 제22회 정기총회

▲四月十五日 上午 八時 (음三月上丁日) 원북재 조묘에서 漁溪선조 향례

趙咸安氏宗會報

發行人: 趙 鏞 韶
編輯人: 趙 英 濟

發行處
咸安趙氏宗事運營會
慶南咸安郡 郡北面 中岩理 126
TEL: (0552)83-6787
FAX: (0552)83-6787
부산연락처: 463-1572

印刷處
도서출판국제·중앙인쇄문화사
TEL: 246-5667·247-9904
FAX: 246-2825

宗會報는 家統資料

謹賀新年

주식회사 유공 YUKONG LIMITED

代表理事 社長 趙圭鄕(在)

☎ (02) 788 - 5114

116年前 漁溪先祖등 生六臣 彰節祠 追配 탄원 上疏文 발견

慶尙道進士등1백14명 連名 경북 靑松 趙鏞河 宗員이 보관

1백16년전 漁溪선조 등 생육신 네분을 강원도 영월(寧越) 창절사(彰節祠)에 추배(追配)되어야 한다는 경상도 유학(幼學) 및 진사(進士)등 1백14명이 연명, 남인한 상소문 원본이 경북 靑松 趙鏞河(경북도의원)종원의 고서(古書) 속에서 발견되어 관심을 모우고 있다.

서기 1881년(高宗 18년·光緖7년) 진사 金景洛이 대표로 되어있는 상소문에 따르면 창절사에 杜彬年, 成三問, 柳誠源, 河緯地, 李塏, 金膺子 등 사육신(死六臣)과 생육신(生六臣)중 金時習과 南孝溫 만이 배향되어있고, 貞節公 趙旅, 李孟專, 成聘壽 元昊 등 사신(四臣)이 배양되지 못했다고 통탄하고 영월에 사당을 둔 것은 군신의체(君臣一體)의 의(義)로서 같이 제사함이리라, 이러한 일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신하가 없을수 없고, 이러한 신하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당이 없을수 없음을 강원도 사당이 있으므로 생육신 네분을 같이 향례를 같이 함이 마땅이 여겨 동사(同祠)로 추배하여 향사(享祀)되어야 한다는 지이 향례함이 불변의 정적하고 있다.

이 상소문은 한지를 여 2m규격으로 되어 있다. 한편 金景洛 등 진사들 이 이후에도 여러차례상 보수등 산적한 문중사업 을 펼칠 대소현공과종사 소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회 창립총회가 지난해 12 월 8일 함안군 군북면 중 암리 중암식당에서 후손 들이 모여 선양방은 成趙 일은 타파(他派)와 구분을 을 자각하여 우리 모두 성 하자는 것이 아니며 오히 려 치단결하여 매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중건된 어모공 재실 영건각

御侮公 재실 落成式

山淸 묵곡에서 많은 後孫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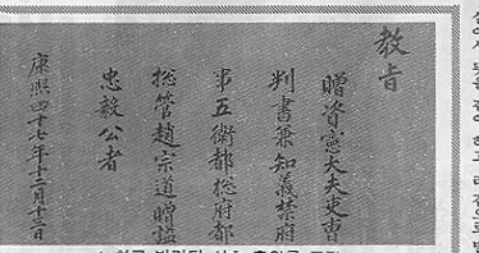
함안조씨 13중의 한분인 어모공(禦侮公) 휘 善字道字(1580~1640년) 선생의 재실 영건각(永慶閣)과 부속 건물 엄혜당(嚴惠堂)중건 낙성식이 지난해 11월 17일 선생의 출생지인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영건각은 1925년 창건되었다가 지난해 이곳에 고속도로가 뚫여 그 보상금과 후손들이 모아 지난 95년 4월 착공, 선생 유허비까지 총중사비 2억2천만원 을 들여 완공, 이날 낙성한 것이다.

어모공은 대소현 선생의 종제로서 39세 무과에 급제하여 (1624년 甲子) 인조 2년 이괄이 난을 이르켰을때 한양 모악재에서 전공(戰功)을 세워 일등 공신(一等功臣)에 올랐던 어모장군으로 책록되었다.

大笑軒 先生 시호 敎旨 발견

2백89년전 肅宗때 "忠毅公"으로 下賜



敎旨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都總管趙宗道贈諡忠毅公者

康熙四十七年十二月十三日

▲ 최근 발견된 시호 충의공 교지

지금부터 2백89년전인 1708년(숙종34년·康熙47년) 12월 13일 대소헌 선생(大笑軒 先生)의 시호(諡號)가 충의공(忠毅公)으로 내린 교지(敎旨)가 발견되어 관심을 모우고 있다.

이 교지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골동품 상가 고도사(古都社) 화랑에 전시(展示)되어 있는 것을 직계후손 一濟 전국회의원이 발견하여 화랑 주인에게 의뢰하여 소장자와 절충하여 어렵게 입수, 보관중이다. 이는가 보물로 보존될 것이다.

교지의 크기는 가로 1백20㎝, 세로 60㎝로 청나라 산 붉은색 종이에 검은 글씨로 되어 있어 진귀한 것으로 귀중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都總管趙宗道贈諡忠毅公者 康熙四十七年十二月十三日

敎旨

시호는 왕(王)이 종친 정 2품이상 문·무관 및 국가 에 특별한 공이 많은 신하, 학문이 뛰어나 존경받은 유학자등 賢臣, 名儒 節臣 그분의 공적과 행적에 맞는 글귀를 함록(合錄)한다.

시호에 상요되는 字意를 몇가지 예를 들어 漁溪 및 大笑軒 先生의 시법을 합록해본다.

* 忠 : 危身奉上(위신봉상), 事君盡節(사군진절)

* 貞 : 淸白守節(청백수절), 淸白自守(청백자수)

* 毅 : 果而能斷(과이능단), 剛而能斷(강이능단)

* 節 : 好廉自克(호렴자극), 謹身制度(근신제도)

1. 시호

① 신하 및 일반 약 300여자를 정해두고 골맞는 두자를 골라 하사한다.

문(文), 충(忠), 정(貞), 공(恭), 양(襄), 등(생략)

2. 시법 : 시호를 정하는 방법으로 시호에 선정된 인물의 의미를 정해 두고, 행적에 맞춰 시호를 내리는 것이다.

시법 : 忠毅(危身奉上曰忠, 剛而能斷曰毅)

3. 成趙門의 賜諡받은 五先祖

① 始祖 趙鼎 : 忠壯

② 德谷先生 趙承鼎 : 文敬

③ 漁溪先生 趙旅 : 貞節

④ 大笑軒 趙宗道 : 忠毅

⑤ 奉朝賀 趙重晦 : 忠憲

9가지(생략)

* 節 : 好廉自克(호렴자극), 謹身制度(근신제도)

4가지(생략)

① 漁溪先生(趙旅) : 시법 : 貞節(淸白自守曰貞, 好廉自克曰節)

② 大笑軒 先生(趙宗道) 시법 : 忠毅(危身奉上曰忠, 果而能斷曰毅)

大笑軒公派 창립 총회

世庄대문간 복원등 淨化事業 펼쳐

大笑軒 선생의 묘역(墓域)정화, 세장(世庄)대문 개축, 이날 초대회장에 간 복원, 오산재(梧山齋) 선생 유허비 보수등 산적한 문중사업을 펼칠 대소현공과종사 총회가 지난해 12월 8일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중암식당에서 후손들이 모여 선양방은 成趙 일은 타파(他派)와 구분을 을 자각하여 우리 모두 성 하자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치단결하여 매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회장=一濟 ▲부회장=漢奎, 鏞暖, 一千, 英汶, 英來, 明來, 洋來, 範來, 璟濟, 顯斗, 顯彧, 顯大

대소현공과종사회는 앞으로의 역점사업은 주차장 조성, 진입로 확·포장, 안내판 설치 등이다. 이날 一濟 회장은 성금 1억원을 쾌척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篁岡齋 보수

大笑軒 先生 孫子 戶議公 후손

대소헌 선생의 손자이신 호의공(戶議公) 후손들이 노후된 재실 황강재(篁岡齋) 보수 및 정화사업에 나섰다.

함안군 법수면 갈우리에 있는 이 재실은 관리 예상액은 5천2백여만원인데 전국 후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헌성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顯國 종원=1천만원 ▲碩來 종원=2백만원 ▲璟汶 종원=2백만원 ▲璟汶 종원=2백만원 ▲既濟 종원=2백만원 ▲秀男 종원=1백만원 ▲吉來 종원=1백만원

12억 敷地 釜山花樹會에 회사

부산 靑年會서 81년에 마련한 巨堤洞 땅

함안조씨 부산 청년회가 1981년도 마련했던 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223번지 1백26평의 이 땅을 보수를 위해 황강회를 조직, 모금에 나섰는데 顯國 종원이 1천만원을 쾌척하자 많은 후손들이 줄을 잇고 있다한다. 소요 예상액은 5천2백여만원인데 전국 후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헌성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顯國 종원=1천만원 ▲碩來 종원=2백만원 ▲璟汶 종원=2백만원 ▲秀男 종원=1백만원 ▲吉來 종원=1백만원

고 趙鏞玉옹 詩文集 발간

큰아들 彊濟 종원이 遺稿 번역

牧泉 고 趙鏞玉옹의 시문집(詩文集)이 최근 큰아들 彊濟 종원에 의해 발간되었다. 彊濟 종원은 보전에 이바지 해오다가 관하고 있던 선조 유고(遺稿)를 직접 번역하여 서울과 학사에 의뢰하여 간행한 것이다.

趙옹은 해방을 맞아 함안에서 청년운동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몸담아 함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오다가 7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한편 이 책을 갖고자 하는 분은 부산 2621-1034번 쉬濟 종원에게 연락해 주기 바라고 있다.

謹·賀·新·年

咸安趙氏 馬山花樹會

會長 趙 世 奎 (斗巖公派)

慶南 馬山市 合浦區 南城洞 경남약국

☎ (0551)46-7904

축 永慶閣 重建落成 축

南溪公後禦侮(默谷) 公派 宗事運營會

■顧問 趙鏞七 ■會長 趙鏞立 ■總務 趙鏞云

모두 1천800만원

海南奬學會 96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

海南장학문화재단(理事長·趙盛濟)은 지난해 12월 20일 칠원초등학교 식해야 한다는 강조하고 학업로타리클럽회의 와 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사장에게 보답하는 것이날 이사장은 이라는고 말했다. 趙一濟 이사장은 "이사장 이날 장학금은 조영래 이 고향을 사랑하고 후 군등 초등학생 34명과 학들을 아끼는 거룩한 뜻을 학생들은 깊이 인식하여 한다는고 강조하 각 30만원씩 1천8백만 원을 수여했다.

해남장학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25일 창립 이후 세차례에 걸쳐 6천8백50만원의 장학금과 아라가야학술토론회 지원금을 전달했다.

▲성주특강 컬러강판공장 준공식

成宙特鋼 아산工場 준공

成濟宗員 칼라강판 年産8만톤 규모

釜一産業(株)등 7개 만든의 컬러강판을 생산 미리의 강판에 각종무 게열기업을 거느리고 있 하는 이 공장의 규모는 늬강판이 생산되는데 는 成濟종원이 지난해 5천 1백20평의 부지위 간 존중의 정신가 서 발생(發生)되고인 11월 19일 충남아산시 에 1천2백평의 건물을 원, 98년도에는 5백억 와 예(禮)(禮)가 여기 음봉면에 컬러강판을 생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산하는 成宙특강(주)이 올해 49세의 成濟종원 이날 준공을 갖고 본격 은 釜山청년회장을 2 서 우리 생활의 기초질 산공장을 건립, 준공식 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년간 역임한 숭조사상 서와 기본질서인 五 이 되는 생산되는 제품을 두게 원을 투입하여 연산 8 0·23미리부터 1·2 이 투철한 함조인이다. 중요시 하는 이유는 이 유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 와 한 인로타리클럽회의 고 실에서 96년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사장에게 보답하는 이날 이사장은 이라는고 말했다. 趙一濟 이사장은 "이사장 이날 장학금은 조영래 이 고향을 사랑하고 후 군등 초등학생 34명과 학들을 아끼는 거룩한 뜻을 학생들은 깊이 인식하여 한다는고 강조하 각 30만원씩 1천8백만 원을 수여했다.

해남장학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25일 창립 이후 세차례에 걸쳐 6천8백50만원의 장학금과 아라가야학술토론회 지원금을 전달했다.

先祖의 文化遺産 더욱 빛내자

宗事運營會의 業績과 앞으로의 課題

趙晶來 〈文化部次長〉

지난해 초여름이 시작되던 어느날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오리 전태부씨의 저서 '씨알 머리 없는 세상'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KBS-TV 프로그램으로 저자 전태부씨의 인생노트 씨알머리 없는 세상이 방영되었다.

가야문화와 함께 함안조씨 13중(十三忠)의 행장(行狀)을 크게 조명하여, 우리 가문을 씨알머리있는 집안으로 위상을 격상시켜 자긍심을 심어 줌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살을 하고 시원한 충격을 느끼게 했다.

이처럼 선조의 음덕(陰德)이 크고 넓은 줄을 모르면 우리에게 지난 파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귀중한 동기가 되었다.

씨알머리란 '씨'는 아비 한는, '알'은 어미 땅 사람은 자식 사람이라는 뜻으로 생명의 근원이며, 조상의 뿌리를 의미하는 뜻 깊은 말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부도덕성 때문에 씨알 머리 없는 세상이라고 통자하는 세태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契機)가 되었다.

이는 우리의 선조님들께서 종사운영(宗事運營)을 위해 종회(宗會)를 조직하여 많은 업적을 쌓아 우리에게 (宗規)를 확립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선조님들께서는 오래 옛날부터 세세대대(世世代代)로 혈족을 이루어 오면서 조상숭배의 정신이 부철하였고, 명문(明文) 또는 불문율(不文律)로 종회를 운영한 것이 오늘로 계승되었으나, 현대에와서는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일가 상호간의 유대(紐帶)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선조님들께서 종사를 운영하면서 이룩한 성과를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은 현재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 유산이 질(質)이 중심으로한 사회를 이루어 오면서 조상숭배의 정신이 부철하였고, 명문(明文) 또는 불문율(不文律)로 종회를 운영한 것이 오늘로 계승되었으나, 현대에와서는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일가 상호간의 유대(紐帶)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선조님들께서 종사를 운영하면서 이룩한 성과를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은 현재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 유산이 질(質)이 나양(量)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이 않은 그 가치의 소중함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1세대 간의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새로운 발전을 추구(追求)하고자 한다.

▲1975년 12월 10일=함안조씨 종사운영회 창립, 초대회장: 조용찬
▲1975년 12월 10일=서산서원 복원
▲1977년 9월=함안조씨 종여록 발간
▲1988년 5월 23일=영월 정절공 어계선생 사적비 건립
▲1991년 5월 위토종답 3만 7백여평 제방공사 완공
▲1986년 5월 19일=합천군 묘산면 반포리에고려봉익대부 판도판서 위 천계유허비 건립
▲1986년 5월 19일=합천군 가회면 두심동에 전서공 금은 휘 열선생 유적비 건립
▲1987년 9월=함안조씨 종사운영회 창립, 초대회장: 조용찬
▲1975년 12월 10일=서산서원 복원
▲1988년 5월 23일=영월 정절공 어계선생 사적비 건립
▲1991년 5월 15일=제 3대 회장: 조용주
▲1993년 3월 15일=어계선생 문집 번역 출간
▲1994년 2월 26일=응담제 중건 추진
▲1994년 4월 10일=제4대 회장: 조용소
▲1991년 10월 13일=응담제 중건 기공식
▲1994년 11월 1일=함안조씨 종회보 창간
▲1996년12월 4일=응담제 중건 낙성, 공로자 표창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집행부의 고뇌와 많은 종원들의 성금은 물론 많은 시간과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음을 말하나위 없으나 주신 보람의 결정체라 다각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이렇게 종회를 통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 조상을 함께 모시자는 보다 더 잘 모시자는 효심(孝心)의 발로(發露)로 모든 종원을 이 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의 종원은 내가 아니라도 또는 내가 아니면 하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단합과 결속을 해치는 불화음(不和音)이 나타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많은 종원이 종중을 위하여 위 한것은 무엇인가?
●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갖는가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종회 활동이 자기 개발(開發)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가치관을 정립할 때 자신의 인생을 더욱 윤택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인생의 승패와 행불행이 좌우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갖는가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宗會報협찬금 감사합니다

〈부산〉
▲趙萬濟(慶星大學校敎授)=3만원
▲趙元濟(경북若木출신·中區 大巒洞)=3만원
▲趙雄來(경북若木출신·東萊 溫泉洞)=3만원
▲趙光郎(來·경북若木출신·東區 水晶2洞)=2만원
▲趙容鎭(北區 萬德洞)=1만원
▲趙訓濟(釜山市廳公務員)=2만원
▲趙允孝(海雲臺區 盤如洞)=1만원
▲趙順鍾(釜山鎭區 楊亭洞)=1만원
〈함안〉
▲조인제(郡北面 菊谷里)=2만원
〈경남〉
▲趙性出(金海市 大東面)=2만원
▲趙漢來(김해시 삼방동)=2만원
▲趙祐濟(울산시 삼산동)=2만원
▲趙榮濟(창원시 상남동)=2만원
▲趙遺福(창원시 팔룡동)=2만원
▲趙順世(사천군 소남리)=1만원
▲趙在珪(사천군 소남리)=1만원
▲趙順哉(사천군 소남리)=1만원
▲趙在文(사천군 소남리)=1만원
▲趙鍾俊(東京都 世田谷區)=10만원
〈경기도〉
▲趙順尙(廣州郡 實村面)=2만원
▲趙順錢(진주시 장대동)=1만원
▲趙相來(統營海洋警察署경비정장)=5만원
▲조재완(統營市 무전동)=3만원
〈대구·경북〉
▲趙永濟(大邱廣域市 영상사대표)=3만원
▲趙率洪(鍾·경산시정평동)=3만원
▲趙仁道濟·대구시 상인동)=1만원
▲趙鍾祿(前대구지방 전매서장)=3만원
▲趙雄濟(靑松郡 縣東面)=1만원
▲조광래(大邱廣域市 범어1동)=2만원
▲趙四岩(漆谷郡 若水面)=2만원
▲조영수(安東市 삼산동)=2만원
▲조동규(문경시 북일동)=5만원
〈호남〉
▲조학래(전남 광양군 진월면)=3만원
▲趙正來(전남 광양읍)=1만원
▲조호래(전남 순천시)=2만원
▲조현동(전남 순천시)=1만원
▲조상근(順·全北 완주군 용진면)=2만원
〈충청〉
▲조직현(충주시 수안보)=3만원
〈日本〉
▲趙鍾俊(東京都 世田谷區)=10만원
▲趙順尙(廣州郡 實村面)=2만원

■ 알립니다
원가 세분께서 송금 해주신 해당 우체국에서 「우편대체 무통장 납입통지서」를 보내지않아 존함을 기록하지 못했읍니다. 연락주시면 다음호에 게재하겠읍니다. (담당자)

축
成宙特鋼 아산공장준공
(SUNGJU SPECIAL STEEL CO.)
社長 趙成濟
생산품목
■ HIGH-POLYMER (3도 COATING)
■ HIGH-POLYMER (2도 COATING)
■ TEXTURE 강판
■ PRINT 강판
■ 고 내후성 PCM 강판
■ 일반 PCM 강판
■ LAMINATION 강판
본사공장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587
TEL : (0418) 41-9911, FAX : (0418) 41-9929
영업본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 신화실크빌딩 7층
TEL : (02) 545-9911, FAX : (02) 544-6700
부산영업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335-1
TEL : (051) 728-4000, FAX : (051) 728-4005
관련회사 : ●부일산업(주) ●(주)부일 ●(주)성주 ●(주)코스모 ●원평종합건설(주) ●성주언양휴게소 ●부일 선박설비

咸安趙氏 13忠(6)

先祖의 얼 ⑩

趙相來 〈典禮部長〉

고성공 파조 조응도(固城公 派祖 趙凝道)

공의 휘는 응도(凝道) 자는 사성(士成)이고 호는 송오(松塢) 어계(魚溪)로 중조부요 선조의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 광공(宣傳官公) 휘 정(鼎) 자는 충부공 이순신(李舜臣) 장군을 도와 좌척후장(左斥候將)으로 혁혁한 전공을 올렸으며 삼도 수군통제사가 된 이충무공과 수시로 전략을 의논하였다. 공은 삼십에도 못미치는 나이로도 뛰어난 지모(智謀)와 용력(勇力)으로 책무(責務)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명한 임진년 유월의 고성 당항포(唐項浦) 전투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도와 적의 주력(主力)을 격파하였으며 당시의 초유사 김학봉(金鶴峯)의 조정에 올린 전투수성승첩장계(戰鬪守城勝捷狀啓)에 명기되어 있으며 또한 고성 읍지에도 공의 전승사적(戰勝事蹟)들이 등재(登載)되어 있다.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죽음으로 인한 왜군의 철수작전은 극히 적인 혈전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퇴로(退路)에 위치한 고성 지방의 형세는 7년의 전란속에 남은 군비와 병력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위난(危難)에 직면하게 된 주위에서는 후은 피신하는 후은 도망하는 수령 방백들이 적지(敵勝事蹟)들이 등재되어 있다.

공의 측근에서도 잠시 피신할 것을 권유하는 자 있자 공은 대상(大喪)하여 꾸짖기를 「왕명을 받드러 나라지키는 신하로써 국가와 사직의 위태함을 보고서 어찌 이 한몸의 안전을 도모해서 되겠는냐 죽음으로 진충보국(盡忠報國)할 뿐이다」 하고 의사 운정박애상(義士 雲汀 朴愛祥)공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군관민(軍官民)을 독려하여 흩어진 전투(戰鬪)하다가 마침내 장렬무쌍(壯烈無雙)한 순절(殉節)맞으니 나이 삼십삼세였다. 난중(亂中) 유해(遺骸)는 수습할 수 없었으며 지금의 묘소 (墓)는 공적 쌓았음은 (石壇)을 모셨다.

통훈대부 병조참의(通訓大夫 兵曹參議)에 증직(贈職)되었으며 선무원종이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으로 훈권(勳券)에 록권(錄券)되었으며 고성의 신도동사(新道洞祠)에 배향(配享)되었으나 현재는 훼철(毁撤)되었으며 한만군 군부면 사도리 삼충사에 중부 참판공 봉鵬)과 종제(從弟) 참판공 휘 익도(益道)와 함께 배향되어 매년 음력 3월 말정일(末丁日)에 향사(享祀) 모시고 있다.

先祖의 얼 ⑩ 「처녀할머니」傳說

趙氏집안과 婚事날 잡은뒤 別世 요란한 소리 날때마다 科擧급제

晉州시내 토박이면 「처녀 할머니」 전설(傳說)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데 이 전설이 우리 함안조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소개한다. (編輯者 註)

지금으로부터 4백년 이전 넘은 옛날 이야기다. 漁溪 선조의 장손(長孫) 參判公 휘 舜孚의 증손(曾孫) 휘 毅孚 道孚(1548년생)께서 성년이 되어 晉州에 살던 全義李씨 李司直 정성(景星)의 따님과 혼담이 있다가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李처녀는 성례(成禮)도 못 이루고 벌써 세했다. 李氏 친가에서는 李처녀의 장례를 치제를 두었는데 아들 4형제 중 맏이가 모두 과거에 급제할때 마다 처녀할머니 무덤 앞 남강(南江)에서 요란한 (대야씻는 소리)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는 뒤부터 회괴한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한다. 毅孚 道孚께서 그후 光山金氏와 결혼하여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아들 4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할때 마다 처녀할머니 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마다 처녀할머니 무덤 앞 남강(南江)에서 요란한 (대야씻는 소리)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는 뒤부터 회괴한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한다. 毅孚 道孚께서 그후 光山金氏 계속 급제하여 成趙의 집안에는 대과(大科)에 급제했다는 것이다. 당시 진주 사람들은 남강(成)과 의義)의 가풍(家風)을 실행(實行)하여 충조(曾祖考)와 조고(祖考) 선고(先考)의 삼대가 모두 무과(武科)에 급제한 전통적 영광의 영향아래 열아홉의 나이에 당당히 순절한 참판공 휘 봉(鵬)은 곧 공의 증부이다. 천부의 재질과 평소의 깊임없는 노력으로 굳건히 이어 받은 가풍으로 나라 위해 장렬히 순절한 참판공 휘 봉(鵬)은 곧 공의 증조고(曾祖考)와 고조고(高祖考)의 삼대가 모두 무과(武科)에 급제한 전통적 영광의 영향아래 열아홉의 나이에 당당히 등제(登第)하니 하문과 무훈의 비범함은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곧 벼슬길에 올라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고성현령(固城縣令)으로 배명받아 임지에 당도할 즈음이 바로 임진년이었으며 막강한 왜군의 침공아래 조선팔도가 거의 함락되는 참화를 입게 되었다. 공은 삼십에도 못미치는 나이로도 뛰어난 지모(智謀)와 용력(勇力)으로 책무(責務)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명한 임진년 유월의 고성 당항포(唐項浦) 전투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도와 좌척후장(左斥候將)으로 혁혁한 전공을 올렸으며 당시의 초유사 김학봉(金鶴峯)의 조정에 올린 전투수성승첩장계(戰鬪守城勝捷狀啓)에 명기되어 있으며 또한 고성 읍지에도 공의 전승사적(戰勝事蹟)들이 등재(登載)되어 있다.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죽음으로 인한 왜군의 철수작전은 극히 적인 혈전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퇴로(退路)에 위치한 고성 지방의 형세는 7년의 전란속에 남은 군비와 병력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위난(危難)에 직면하게 된 주위에서는 후은 피신하는 후은 도망하는 수령 방백들이 적지(敵勝事蹟)들이 등재되어 있다.

공의 측근에서도 잠시 피신할 것을 권유하는 자 있자 공은 대상(大喪)하여 꾸짖기를 「왕명을 받드러 나라지키는 신하로써 국가와 사직의 위태함을 보고서 어찌 이 한몸의 안전을 도모해서 되겠는냐 죽음으로 진충보국(盡忠報國)할 뿐이다」 하고 의사 운정박애상(義士 雲汀 朴愛祥)공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군관민(軍官民)을 독려하여 흩어진 전투(戰鬪)하다가 마침내 장렬무쌍(壯烈無雙)한 순절(殉節)맞으니 나이 삼십삼세였다. 난중(亂中) 유해(遺骸)는 수습할 수 없었으며 지금의 묘소(墓)는 공적 쌓았음은 (石壇)을 모셨다.

통훈대부 병조참의(通訓大夫 兵曹參議)에 증직(贈職)되었으며 선무원종이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으로 훈권(勳券)에 록권(錄券)되었으며 고성의 신도동사(新道洞祠)에 배향(配享)되었으나 현재는 훼철(毁撤)되었으며 한만군 군 군부면 사도리 삼충사에 중부 참판공 봉鵬)과 종제(從弟) 참판공 휘 익도(益道)와 함께 배향되어 매년 음력 3월 말정일(末丁日)에 향사(享祀) 모시고 있다.

大邱文化賞수상

衍澈·顯麒 종원

(大邱) 지난해 10월 30일 대구화수회 회원인 衍澈(澈)종원과 顯麒종원이 대구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하는 자 있자 공은 대상, 우리 함조가문을 빛냈다. 衍澈종원은 현재 啓明대학교 체육대교수로서 체육부문을 (체육대회 창 역임) 顯麒종원은 현재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서 학술2부문을 수상했다. 顯麒교수는 학생처장과 공대학장